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3년 2월 13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당자	· 자활지원팀장 박진 ☎440-1541 · 담당자 신윤섭 ☎440-154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수거에서 배송까지 ... 인천시, 취약계층에 공감세탁서비스 지원

- 노인,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취약계층 대상, 대형 세탁물 맞춤형 세탁서비스 제공 -
- 근로장애인과 자활근로자에는 일자리와 소득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2018년부터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가구, 심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세탁을 지원하고 근로장애인과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주는 인천시의 특색 사업이다.

시는 8개 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,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심한 장애인, 쪽방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1인 가구 10만 원, 2인 가구 13만 원, 3인 이상 가구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. 세탁 품목은 이불(극세사이불, 오리털이불 등), 담요, 패드, 매트리스커버, 방한점퍼, 커튼 등 11개 품목이다.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언제든지

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, 세탁, 배송까지 맞춤형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지난해 시는 수거·배송업체(지역자활센터)를 1곳에서 2곳으로, 세탁업체(장애인 보호작업장)를 2곳에서 3곳으로 각 1개소씩 확대해 총 3,372가구(4,043명)에 양질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일자리를 확대한 바 있다.

약 일주일 간 진행된 2023년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1차 신청 접수 결과, 2022년에 비해 111가구 증가한 1,592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다. 시는 적극적 사업 홍보를 통해 4,000가구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세탁 걱정을 덜어 주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

